



2011년 8월 9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 채권분석

미국채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 이머징마켓 동향

미국신용강등 여파로 중화권증시 연일 하락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4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G패션 외 9종목

• 산업/기업분석

디스플레이, KT, 골프존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01(월)	8/02(화)	8/03(수)	8/04(목)	8/05(금)	8/08(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172.31	2,121.27	2,066.26	2,018.47	1,943.75	1,869.45	
	등락폭	39.10	-51.04	-55.01	-47.79	-74.72	-74.30	
	등락종목	상승(상한)	626(15)	170(9)	145(9)	234(15)	66(5)	62(11)
		하락(하한)	229(0)	687(1)	719(2)	609(2)	810(11)	835(18)
	ADR	116.09	106.87	98.47	92.48	84.87	78.73	
	이격도	10 일	100.77	98.45	96.29	94.62	92.10	89.78
		20 일	100.91	98.64	96.31	94.44	91.45	88.56
	투자심리	50	50	40	40	30	30	
	거래량 (백만 주)	259	347	424	348	476	565	
	거래대금 (십억 원)	6,318	7,620	7,953	7,536	10,291	10,682	
코스닥	코스닥지수	544.39	538.06	531.91	522.07	495.55	462.69	
	등락폭	8.34	-6.33	-6.15	-9.84	-26.52	-32.86	
	등락종목	상승(상한)	680(21)	267(14)	211(11)	259(15)	60(9)	76(8)
		하락(하한)	269(1)	684(2)	763(3)	708(4)	944(19)	931(78)
	ADR	111.52	104.68	99.20	94.82	86.99	79.63	
	이격도	10 일	102.14	100.70	99.45	97.65	93.32	88.25
		20 일	105.57	103.88	102.31	100.16	95.08	89.08
	투자심리	70	60	50	50	40	40	
	거래량 (백만 주)	400	503	423	482	536	601	
	거래대금 (십억 원)	1,973	2,376	2,305	2,559	2,938	3,14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5,494.9	1,804.2	2,538.9	538.5	278.6	836.6	116.2	119.8	649.2	933.3
	매도	6,228.2	1,884.2	1,897.6	387.1	225.9	692.6	86.7	264.2	241.1	761.3
	순매수	-733.3	-80.0	641.3	151.3	52.7	144.0	29.6	-144.4	408.2	172.0
	8 월 누계	46.9	-1,827.9	1,724.2	-28.4	99.2	432.2	160.4	-358.4	1,419.1	56.8
	11 년 누계	2,373.2	-2,645.3	2,241.8	2,320.4	-573.9	-4,353.0	1,603.8	-1,791.5	5,036.0	-1,969.7
	코스닥	매수	2,849.1	109.0	176.3	21.1	20.1	73.6	14.0	7.1	40.5
매도		2,844.4	142.2	158.9	24.8	21.7	58.0	9.8	20.9	23.7	28.5
순매수		4.7	-33.2	17.4	-3.7	-1.7	15.6	4.2	-13.8	16.8	11.2
8 월 누계		-58.8	-160.5	232.7	-21.8	69.6	83.6	18.7	-25.0	107.7	-13.4
11 년 누계		4.6	26.4	275.9	65.8	172.5	-78.8	40.2	-82.3	158.6	-306.9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8월 월간 밴드	2,050-2,250pt
2011 연간 밴드	1,880-2,400pt
12MF PER	9.3배
12MF PBR	1.22배
Yield Gap	7.3%P

- ▶ 단기전략: 과매도 베팅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SocGen/UniCredit CDS 안정
- ▶ 중기전략: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미국의 추가 재정정책이 나올 때 시장의 상승 추세 기대
- ▶ 8월 8일 S&P, 페니매/프레디맥 등급 하향 결정. 향후 유럽에 대한 우려 높아져

■ 코스닥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과매도에 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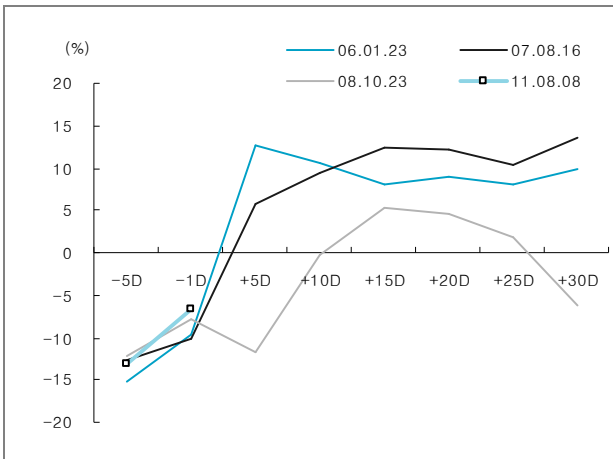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전일 기관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고 외국인투자자 매도세는 잦아들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이틀간 1조 3천억 이상을 순매도 했다. 2009년 이후 지난 금요일과 어제보다 개인의 매도규모가 컸던 적은 단 세차례에 불과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다섯번째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 과거 사례: 단기 저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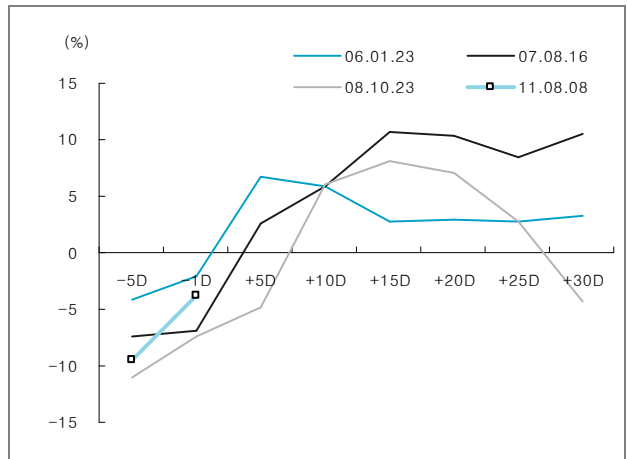
그런데 주지할만한 사실은 과거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을 경우 코스닥은 물론 코스피 시장도 단기 저점을 형성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림 1~2]를 보면 과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던 시점의 코스닥과 코스피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5일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2006년과 2007년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10일 수익률 기준으로는 2008년을 포함해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림 1]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이후 코스닥 단기 흐름



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날 종가 대비 수익률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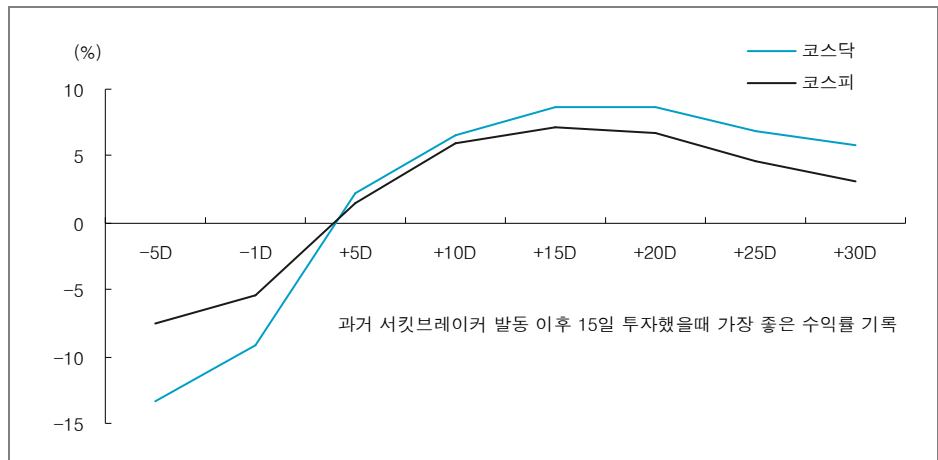
[그림 2]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이후 코스피 단기 흐름



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날 종가 대비 수익률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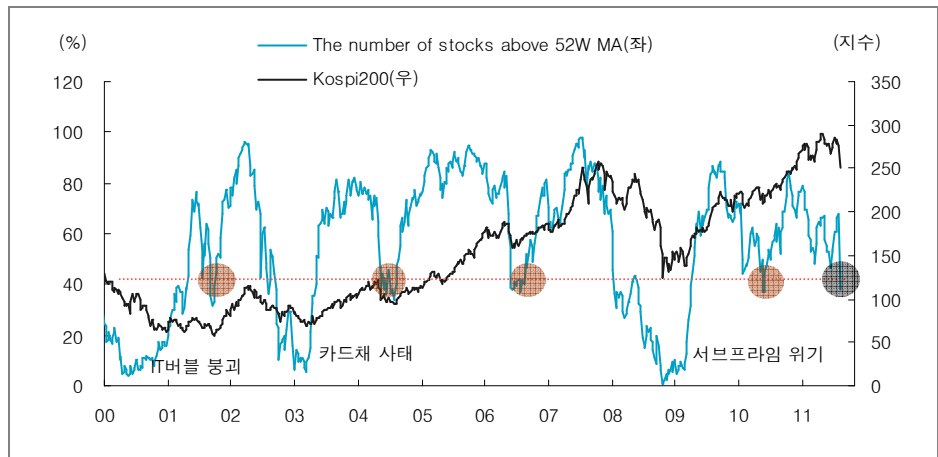
[그림 3]은 과거 사례의 수익률들을 평균적으로 그려본 것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 15일을 투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과거 사례를 단순히 평균해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시장이 과매도 국면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그림 4].

[그림 3]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 한국 시장의 흐름



주1: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날 종가 대비 수익률 기준
 주2: [그림 1~2]에서 과거 사례 평균 수익률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4] 52주 이평비율은 바닥권인 40% 이하로 하락



주: KOSPI200 종목 가운데 52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종목 수 비율
 자료: DataGuide Pro, 한국투자증권

52주 이평비율 상으로도
 과매도 국면. 그러나?

[그림 4]는 KOSPI200의 52주 이평비율(KOSPI200 종목 가운데 52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종목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2000년 이후 통상적으로 40% 부근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세차례의 예외가 있었는데 IT버블 붕괴/한국 카드채 사태/서브프라임 위기 국면처럼 Systematic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였다.

■ 현장세에 대한 우리의 고민

심리에 기반한 시장

그러나 통상적인 상황으로 치부하기에는 현장세의 사안이 지나치게 중대하다. 글로벌 주요 증시가 1주일 사이에 10%이상 급락한 상황을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전략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지금 시장이, 심지어 경제가 군중심리에 기반하여 움직인다는 것이다.

S&P의 미국등급 하향은 정치적 행위

예를들어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이슈가 그렇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을 모르는 투자자는 없다. 다만 그동안 투자자들은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신뢰해왔기 때문에 기꺼이 낮은 이자를 받고도 미국채에 투자해왔다. 이것은 마치 아무 가치가 없는 금이 수천년간 궁극적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던 것처럼 순전히 투자자들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 “오늘부터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박탈해야 합니다¹”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라면 모를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이러한 말을 했다면 이러한 주장 역시 투자자들의 지지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이다.

결국 S&P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이슈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향후 전개되는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두 가지 관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응적(Adaptive)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고 이 변수의 전개과정에 따라 시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일종의 시나리오 분석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주목한다.

첫째, 시장이 과매도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단기 반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무엇인가?

둘째, 시장의 중장기적 추세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 단기 시나리오 전략: 과매도 베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유럽에 대한 연쇄적 신용등급 하향 우려가 감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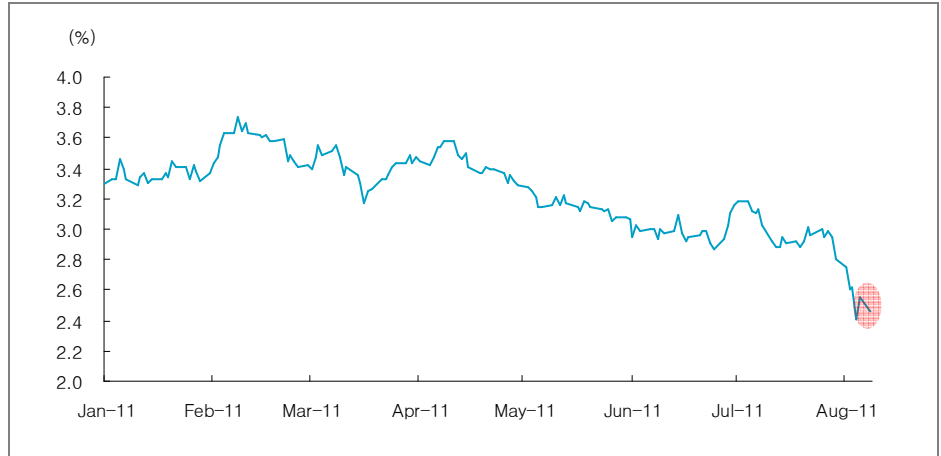
단기적으로 신용등급 하향 이후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가 미국 경기침체와 신용등급 하향 이슈라고 봤을 때 보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신용등급 하향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S&P의 ‘주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표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¹ 기축통화국에게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하고자 하는 S&P의 조치는 이러한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정작 미국 국채의 가치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금값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지만 신용등급 하향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미국채와 미국달러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우리 시각 23시 기준으로 S&P500지수: -2.25%, 미국채 10년물: -12bp 달러인덱스: +0.32% 기록 중).

[그림 5] 미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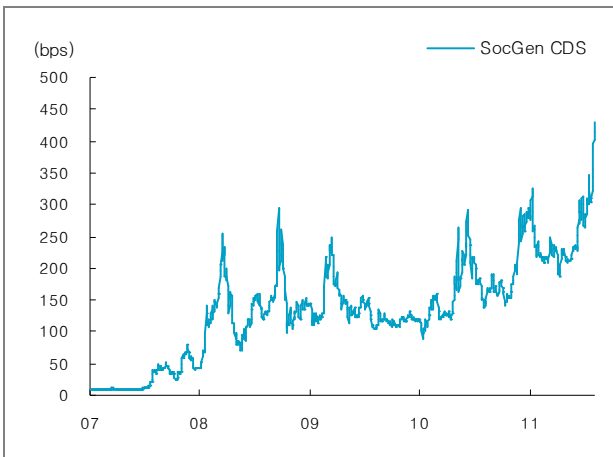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SocGen/Unicredit
CDS 하락이 단기 바닥 신호

ECB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을 시작했지만, 신용강등이 확산될 경우 AAA 등급의 유럽 국가와 특히 유럽의 금융기업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프랑스의 SocGen와 이탈리아의 Unicredit이다. 두 기업의 CDS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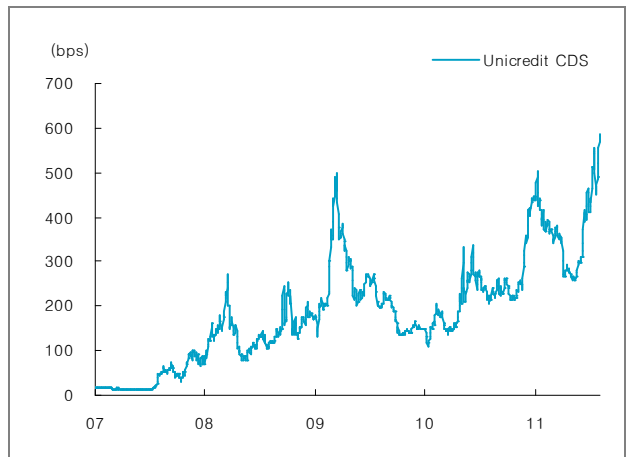
이번 등급하향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말물린 국면이 단기적으로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기업의 CDS가 하락세를 보여야 한다. 단기적인 전략, 즉 과매도에 베팅하는 전략 역시 두 기업 CDS의 움직임에 따라 적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SocGen CDS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Unicredit CDS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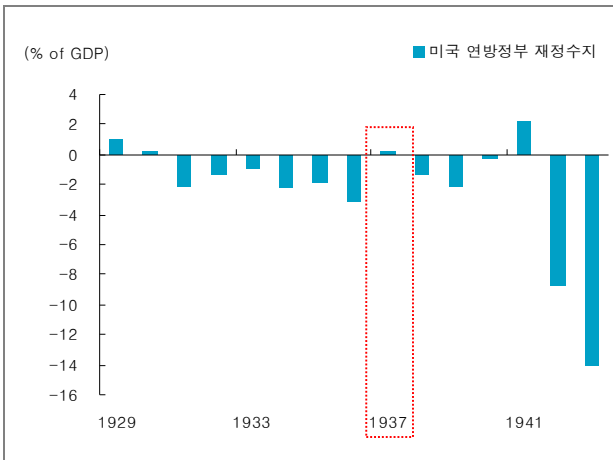
■ 중기 시나리오 전략: 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1937년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1937년 시나리오의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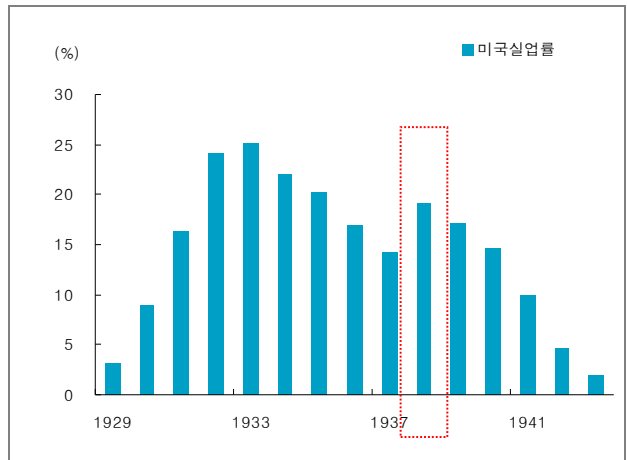
시장이 우려하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경기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러모로 1937년의 사례와 닮아 있다. 1937년의 사례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재정정책의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8] 1937년 재정지출 축소로...



자료: NBER,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제 2차 대공황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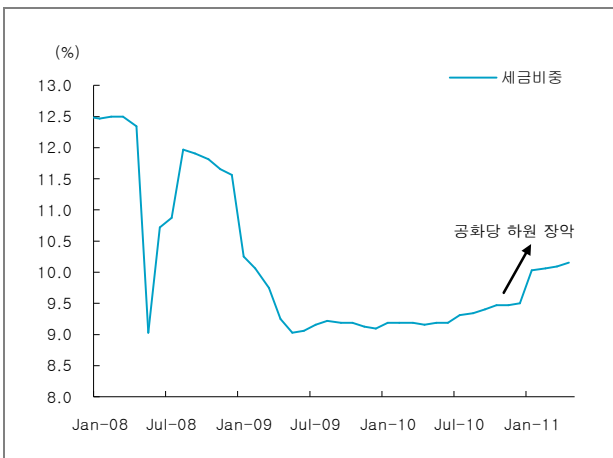


자료: NBER, 한국투자증권

공화당의 하원 장악 이후
미정부 역할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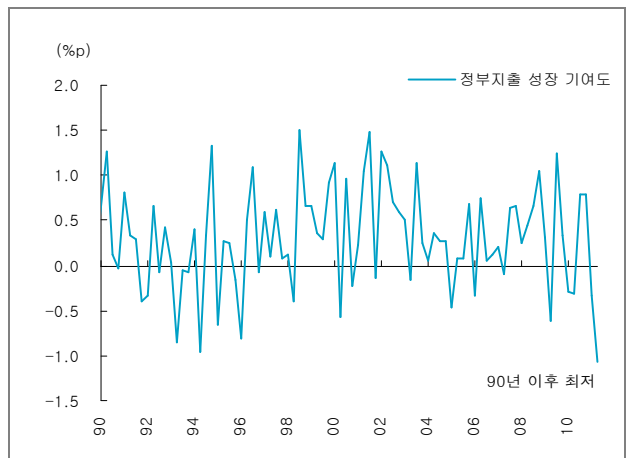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주요 화두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었다. 올해 1월부터 공화당이 미국 하원을 차지한 이후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가처분 소득 대비 세금 비중이 올해 1월 이후 소폭 상승했다.

[그림 10] 미국 소비자 가처분소득 대비 세금 비중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미국 GDP 성장 기여도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재정적자 감축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올해 1/4분기 정부의 소비지출 성장 기여도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1.07%p까지 하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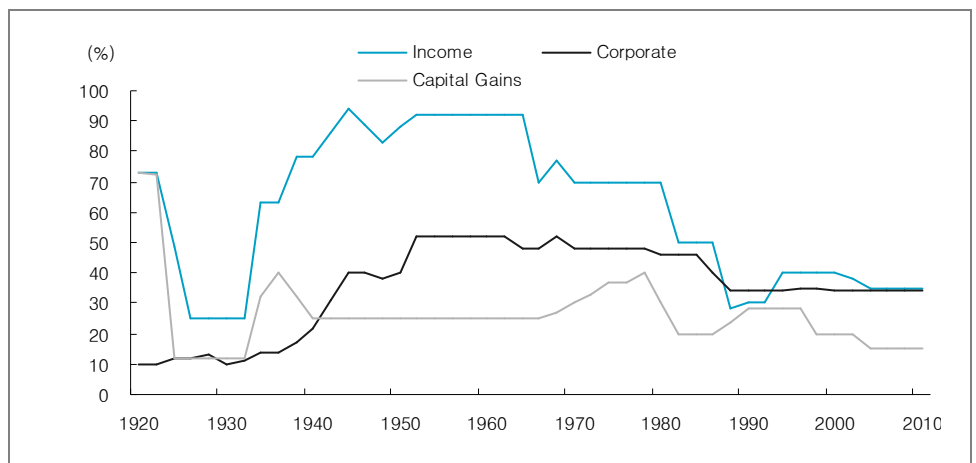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다툼이 여러 측면에서 1937년과 유사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역사적 경험을 보면
추가 재정정책이 필요

우리는 1937년의 반복을 피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감소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확대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추가 재정정책은 고용에 대한 기업 세제 혜택과 실업수당을 연장처럼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1.5조 달러 규모의 장기재정감축 계획 마련을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에서 세금 시스템을 보완하고(loophole) 대신 의료시스템 개혁처럼 미국 재정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림 12] 미국의 최고 세율



자료: TaxPolicyCenter.org, 한국투자증권

이것은 실제 미국 정치권과 학계 및 금융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다. 불과 얼마전만 하더라도 이 같은 시나리오가 그대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았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이 점차 경기침체와 구조적 위험을 인식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중기적인 적응적 전략은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낮아지고 재정정책의 방향이 가시화될 때 시장의 상승 추세도 다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긴급추가: S&P, 프레디맥/페니매 등급 하향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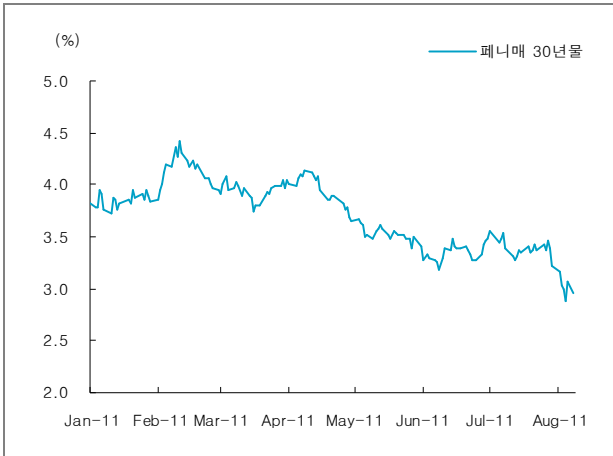
본 보고서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S&P가 프레디맥과 페니매의 투자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다는 외신이 보도됐다. -2% 수준이던 미국 증시는 약 -4%까지 하락폭을 확대했고 유럽 증시 역시 하락폭이 커지며 프랑스와 독일 증시는 -4% 이상 하락하고 있다.

프레디맥과 페니매의 투자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동사의 조달 금리가 상승 하면서 소비자들의 모기지 금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금융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채권 가치가 하락하여 금융 기관들이 평가손실을 받게되는 경우이다.

첫번째 우려와 관련하여, 8월 8일 등급 하향 조정 이후에도 페니매 30년물 금리는 미국채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다만 페니매채권과 미국채 간의 스프레드가 최근 한달동안 25bp 상승했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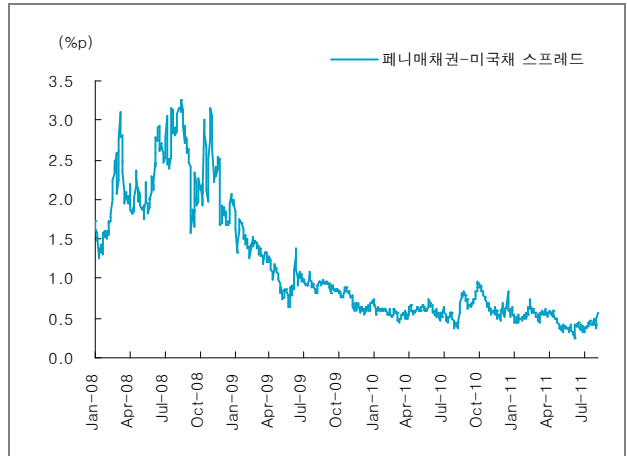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 14]에서 보듯이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프레드의 상승이 모기지 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S&P의 등급 하향 조정 이후 미국채가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는 국면이 지속된다면 프레디맥과 페니매의 절대적인 금리 역시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등급 하향에도 페니매 금리는 하락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국채간 스프레드는 증가했어도 여전히 낮은 수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두번째, 금융기관의 보유 물량에 대한 가치 하락 문제도 매우 크리티컬한 리스크는 아니다. 바젤협약에 의하면 AA- 이상의 등급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AAA등급의 채권과 AA+ 등급의 할인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이번 이슈로 인해 미국 주택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인데,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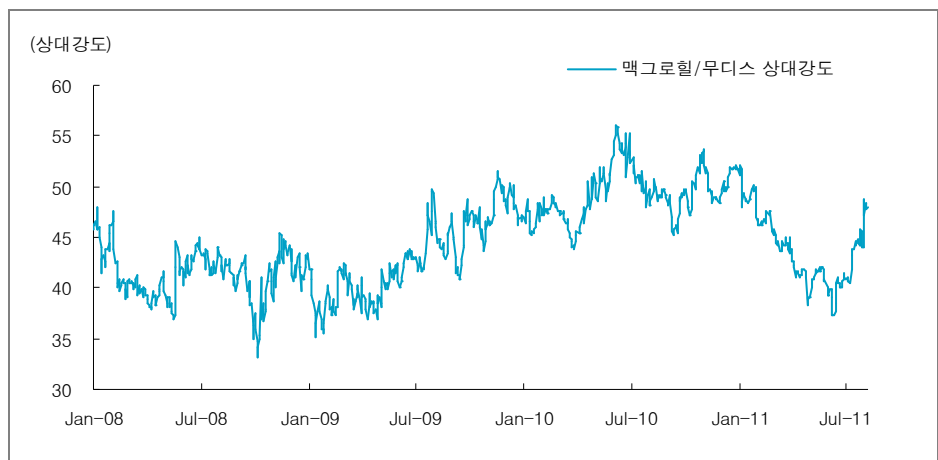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S&P의 후속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시장 우려는 유럽의 AAA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B의 국채 매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유럽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금일 시세가 이를 반증한다.

결국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유럽의 CDS가 안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P가 이처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S&P는 맥그로힐의 비상장 자회사인데 맥그로힐과 무디스의 상대강도를 비교하면 매우 흥미롭다. S&P의 공격적인 행보가 부각된 이후 무디스에 대한 상대강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8일 무디스는 미국의 AAA 신용등급을 재확인했는데 두 기업의 시각 차이만큼 상대강도도 벌어지고있다. 이 상대강도의 방향이 반대로 갈 때, 다시 말해 시장이 S&P보다 무디스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도 지금 장세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변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림 15] 맥그로힐(S&P 모회사)/무디스 상대강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미국채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 지난 주 시장동향: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급락, 미국 신용등급 강등

8월 첫째주 채권금리는 7월 CPI 급등과 외국인 채권투자 규제 가능성으로 상승하여 출발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지표 둔화로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채권시장은 강제로 전환했다. 그린북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표된 것도 매수재료로 작용했다. 장 마감후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지만,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시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 미국채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S&P가 미국 장기 신용등급을 'AA+' 로 강등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채 금리의 상승은 일시적이며 그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현실적으로 미국 국채를 대체할만한 안전자산이 마땅치 않기에 미국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 단기 신용등급은 여전히 'A-1+' 를 유지하고 있어 MMF가 미국채를 매도할 기술적 이유도 없다. 은행권도 디폴트에 대비해 대규모 현금유동성을 확보해 왔기에 이번 크레딧 이벤트는 단기물보단 장기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S&P의 등급하향으로 미국의 장기 펀더멘털에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장기금리는 향후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 시장전망: 금리하락 제한적으로 이어질 것

이번 주 채권시장은 전주의 금리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미국채와 달러를 대체할 자산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채의 신용등급 하향이 국제자본 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8월 금통위에서 정책금리 인상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국채금리와 정책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채권금리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8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미국신용강등 여파로 중화권증시 연일 하락

- ▶ 미국 신용강등, 프랑스 국가신용 하락 가능성 제기로 글로벌증시 패닉
- ▶ 양로보험(Pension Fund)의 주식시장 투자 확대 및 광대은행 실적호재의 영향 제한적
- ▶ 황금 제외한 모든 업종 일제히 하락

미국 신용등급 하락
상해지수 큰 폭 하락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전일 약세를 이어 3.8% 급락했다. 하락세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2,500선 아래까지 내렸다가 결국에는 2,527pt로 마감했다. 전주말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던 악재로 글로벌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진 것이 약세의 주요 배경이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도 강등될 가능성이 제기돼 시중의 공포심리를 더했다.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8월 중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했다. 중국 금융감독당국이 “양로보험(Pension Fund)의 주식시장 투자(일명 China Version 401K Plan) 관련 안을 제출했다는 호재가 알려졌지만 약세 흐름을 전환시키지 못했다. 모든 업종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항공, 농업, 철강, 석유, 증권, 석탄 등 업종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광대은행의 반기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호재로 은행업종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황금가격 강세 전망으로 산동황금(山東黃金)을 비롯한 황금관련 종목은 상승세로 마감했다.

■ 홍콩 시장

H지수 5거래일 연속 하락
투자심리 급격히 위축

H지수는 5거래일째 약세를 지속하며 2.8% 하락했다. 지난 해 5월말 이래 최저 수준인 11,113pt로 마감한 지수는 장중 한때 5%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충격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업종별로 자동차, 철도건설, 철강, 전력, 석탄, 부동산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정책수혜 및 가격상승 전망으로 제약, 비철금속 관련 종목의 하락폭은 1% 이내로 제한됐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8/8(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527	-3.8	-6.5	-6.5	-10.0
홍콩 H	11,113	-2.8	-11.4	-10.2	-12.4
인도 SENSEX	17,093	-1.2	-6.7	-6.1	-16.7
러시아 RTS	1,756	-2.4	-11.6	-10.6	-0.8
브라질 보베스파	52,949	0.3	-10.0	-10.0	-23.6
베트남 VN	396	-1.1	-1.4	-2.3	-18.2
MSCI 이머징마켓	1,041	-3.0	-9.3	-8.5	-9.6

주: 8일 오후 6시 기준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 용
차바이오앤(085660) ▶11,300원(+7.11%)	천식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에 동사가 개량신약으로 개발 중인 천식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며 견조한 오름세 - 이번 천식치료제는 올해 초 식약청이 임상시험을 허가해준 몬테루카스트 OTF 제제이며, 동사는 최근 임상을 완료
리드코프(012700) ▶3,805원(+3.68%)	2분기 호실적 기록 소식에 연일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영업이익이 88억 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9%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 - 아울러,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0%, 112.3% 늘어나며 각각 562억 200만원과 66억 9,600만원을 기록
성지건설(022220) ▶81,900원(상한가)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경영정상화 기대감이 고조되며 상한가 - 인수대금은 441억 1,100만원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인수대금은 변제 대상 회생 채무의 변제와 매각주간사 용역보수지급 등으로 사용될 계획
유진로봇(056080) ▶2,2700원(상한가)	뉴질랜드에서 실버케어로봇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년간 개발해 온 실버로봇의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뉴질랜드의 한 노인요양소에서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에 상한가 - 테스트중인 로봇은 치매방지를 위한 브레인트레이닝과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원격 진료기능, 오락기능 등을 포함
저출산 관련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무상교육 확대 추진 발언에 힘입어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전 대표의 대권 행보 본격화로 수혜 기대감이 강화되는 가운데,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무상교육 확대 추진 발언에 힘입어 강세 - 삼성출판사(068290), 예림당(036000), 허메스홀딩스(012400, 이상 상한가), 아가방컴퍼니(013990, +7.14%), 보령메디앙스(014100, +2.20%) 등 강세
증권주	증시 폭락에 급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시장이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충격으로 1,870선을 하회하여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시장은 장중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폭락하자 급락세 - 유진투자증권(001200, -14.32%), SK증권(001510, -12.04%), 미래에셋증권(037620, -10.60%), 동양증권(003470, -9.34%), KTB투자증권(030210, -8.72%) 등 급락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4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SK텔레콤 (017670)	135,500 (-3.9)	141,000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가입자 수 증가 및 마케팅 비용 통제 등으로 양호한 실적 개선세 지속 - 플랫폼 사업 분사는 플랫폼 사업의 정부규제 회피 및 신규 수익모델 창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한 리스크는 주가에 일정부분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 및 배당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삼영이앤씨 (065570)	6,000 (-4.8)	6,300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10억원(+1% YoY), 49억원(-7% YoY)으로 예상. 영업환경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실적 - 하반기 영업환경 개선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전망. 고마진 제품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26%대로 회복 예상 - 2011년 추정 EPS 기준 PER은 5배 수준으로 국내 독점적 시장 지위, 사상 최대 실적 행진 지속, 국내외 해상 규제강화로 인한 수혜 등을 감안하면 저평가 상태
인터로조 (119610)	9,520 (+2.9)	9,250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매출액 59억원(YoY +21.4%, QoQ +9.5%), 영업이익 21억원(YoY +14.7%, QoQ +35.5%)으로 추정(영업이익률은 35%로 전분기대비 6%p 상승) - 기존 매출처인 유럽권역에서의 매출 호조와 더불어 중국 호리엔사 매출 9억원(추정) 발생으로 고객사 다변화 효과 기대 - 3분기 신제품 원데이씨클렌즈 출시 및 마케팅 강화로 현재 미미한 (2% 내외)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빅솔론 (093190)	4,365 (+0.8)	4,330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프린터 부문의 5가지 신제품 출시 및 신형시장 개척 등으로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 지속될 전망 - 무차입경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점(2010년 말 기준 20%)과 190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도 긍정적 - 2011년 추정 EPS 기준 PER은 4배 수준으로 양호한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저평가 상태
웅진씽크빅 (095720)	17,500 (+3.2)	16,950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학교 사업 철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전집 사업 일회성 비용 소멸로 2분기부터 외형 회복 및 수익성 개선 예상 - 하반기 학습지, 영어학원 사업의 성장 및 신규 사업 효과로 실적 개선 모멘텀 부각될 전망 - 웅진패스원(지분율 62%) 상장 및 배당주 매력(배당수익률 6.4%)도 긍정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LG패션 외 9종목

- 신규: LG패션, 한화

- 제외: 한세실업, GS건설(시세부진)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1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G패션 (093050)	46,200 (-)	46,200 (8/8)	1,312.7	157.3	125.1	4,279	10.8
- 매장 확대 및 신규 브랜드 도입을 통한 외형 확대 및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 자체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중국시장 공략 본격화에 주목할 필요							
한화 (000880)	41,550 (-)	41,550 (8/8)	5,301.8	200.7	313.8	4,514	9.2
- 핵심 자회사인 대한생명, 한화케미칼 등의 기업 가치 및 자체 영업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전망							
농심 (004370)	245,000 (0.0)	245,000 (8/5)	2,008.4	116.6	137.0	23,686	10.3
- 원가 부담은 상존하나 프리미엄 제품 출시 및 스낵 가격 인상 효과 등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KT&G (033780)	66,800 (-0.1)	66,900 (8/5)	3,662.3	1,193.6	938.0	7,415	9.0
- 담배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신규 사업 가시화, 배당수익률 등이 부각되며 투자매력 상승할 전망							
현대중공업 (009540)	339,500 (-10.9)	381,000 (8/3)	25,117.9	3,047.9	3,229.5	52,693	6.4
- 하반기 육상플랜트/해양플랜트부문의 수주 모멘텀 및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가치가 재부각될 전망							
현대모비스 (012330)	328,500 (-4.8)	345,000 (8/3)	15,420.4	2,110.8	2,891.0	29,691	11.1
-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시장에서의 선전 및 동사의 해외 OE 매출 확대에 의해 견고한 수익은 지속될 전망							
대한항공 (003490)	65,200 (-4.8)	68,500 (7/28)	12,524.7	841.2	372.1	5,405	12.1
- 하반기 여객 및 환승 수요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화물부문의 경쟁 우위와 운항 효율성 개선으로 중장기 성장성 확보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42,900 (+5.5)	40,650 (7/12)	96.5	87.1	84.7	7,847	5.5
- 자회사인 골드원코리아 가치 및 영원무역의 실적 호조,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송원산업 (004430)	15,500 (-8.3)	16,900 (6/21)	706.3	70.3	50.1	2,089	7.4
- 폐플라스틱 하락효과(5월 고점대비 -25%), 한-EU FTA로 인한 관세(6%) 철폐효과, 제품가격 상승 추세 등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GKL (114090)	21,850 (+15.3)	18,950 (6/13)	559.0	133.4	69.7	1,127	19.4
- 중국인 입장객 증가, 홀드를 안정화 및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한화, KT&G,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대한항공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8월 상반기 TV패널가격 2~3% 하락

■ 경기부진으로 인한 TV패널 수요 부진 지속 영향

8월 상반기 TV패널 가격이 2~3% 추가 하락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처음 하락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TV완제품업체들의 판매전망이 계속 내려가고 이로 인한 패널수요 약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산업 내 재고하락, 패널업체들의 적극적인 설비투자 계획 축소 등 산업사이클을 나타내는 지표는 이미 바닥을 확인시켜 주고 있지만, 매크로 환경 악화로 인해 사이클 회복의 전환점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패널가격 하락전환이 추세적인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이클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 서는 선진국의 경기하락세가 진정 되는 모습이 나와야 할 것이다.

■ CMI 설비투자 추가 축소 발표, 연초 대비 50% 축소

지난 8월 4일 CMI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011년 설비투자 계획을 추가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연초 TWD 100bn(USD 3.4bn)이었던 설비투자 계획을 지난 7월에 20~30% 감소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주에 다시 TWD 50bn(USD 1.7bn)까지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상위 4개 패널업체들 모두 2011년 LCD설비투자 축소를 결정했고, 이들 업체들의 2011년 설비투자 규모는 연초 대비 30%수준 감소될 전망이다. 비록, 수요 환경은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공급측면의 조절을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 사이클 회복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 LG디스플레이 PBR 0.8배 미만, 2008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

전세계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LG디스플레이의 주가도 지난 4거래일 동안 17% 하락했다. 현재 LG디스플레이 주가는 PBR 0.8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0.7배까지 하락했던 이후 가장 낮게 거래되고 있다. 수요부진으로 사이클의 모멘텀은 약하지만, 주가는 지나치게 하락했다는 판단이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 AMOLED산업 성장 수혜주인 덕산하이메탈, 에스에프에이 선호

경기부진으로 사이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디스플레이산업 내에서 중소형에서 대형으로의 확장이 예상되는 AMOLED산업의 성장 수혜주인 덕산하이메탈과 에스에프에이를 추천한다. SMD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형 AMOLED패널산업은 2012~2013년을 거치면서 8세대로 확장될 전망이다. 8세대 AMOLED패널 생산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기술변화에 따른 위험도가 낮은 덕산하이메탈과 에스에프에이는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덕산하이메탈은 경쟁사의 시장진입이 지연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에스에프에이는 증착 기술 방식의 변화와 관계없이 장비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두 종목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각각의 목표주가 37,000원, 80,000원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8월 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T(030200)

매수(유지)
목표가: 54,000원(유지)
종가 (8/5): 38,800원

배당 메리트에 주목할 시점

■ What's new : 2분기 수익성은 예상치 하회

2분기 수익성은 우리의 추정치를 하회했다. K-IFRS 연결기준 2분기 매출액은 우리의 추정치를 1.0% 하회했으며 순이익은 고객관리 비용 등 제반 비용이 늘어 추정치를 13.5% 하회했다. K-IFRS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은 고가의 단말기 판매 증가로 전분기 대비 1.3%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0.0% 줄었으며 1분기 조정 영업이익(회계적 이익인 Skylife 지분법투자주식처분이익 1,874억원 제외)과 비교해도 19.0% 감소했다. 임금 상승분 소급 반영으로 인건비가 5.9% 늘고 고객만족 활동 강화로 지급수수료가 13.6% 증가했기 때문이다. NTC 지분매각 손익 1,619억원은 순이익에 반영됐다.

■ Positives: 스마트폰 및 IPTV 성장성, 마케팅비용 절감

2분기 영업실적에서 긍정적인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스마트폰의 높은 성장성이 지속됐다. 6월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524만명으로 3월 대비 36.6% 증가했다.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이 32.3%로 높아지면서 무선데이터 매출액은 7.9% 증가했다. 둘째, IPTV는 Skylife와 결합한 상품의 판매 증가로 가입자가 크게 늘어(3월 239만명, 6월 262만명) 매출액이 15.7% 증가했다. 셋째, 마케팅비용 통제가 잘 됐다. 신규 가입자수가 39% 증가했으나 신규 가입자 중 단말기 보조금이 적은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이 높아져 마케팅비용이 5.7% 감소했다.

■ Negatives: 제반 비용 증가, 이동통신 ARPU 정체

하지만 부정적인 점도 컸다. 첫째, 제반 비용이 증가했다.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비용 증가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1인 2폰 확대, 요금할인제 영향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0.1% 증가에 그쳤다. 요금인하는 ARPU에 부정적이나 요금할인제 축소는 긍정적일 것이다.

■ 결론: 매수의견 및 목표주가 54,000원 유지

KT에 대한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54,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K-IFRS 연결기준 12개월 forward EPS에 목표 PER 9.4배(과거 5년 평균 PER을 14.2% 할인)를 적용해 산출했다. 매수의견을 유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경기 방어적인 특성과 배당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배당수익률이 5.9%에 달해 하반기 투자종목으로 적합하다. 2) Valuation 매력이 높다. 12개월 forward PER, EV/EBITDA, PBR이 각각 6.6배, 3.4배, 0.7배로 낮은 수준이다. 3) 3월 KT그룹 미디어 사업(IPTV, Skylife)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20.7%(가입자 456만명)로 1년 만에 2.8%p나 상승했다. IPTV는 결합상품의 시너지로 12년 초에 흑자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397.8	5,342.8	(1.0)	5,348.4	1.3	7.9	21,296.3	21,071.0
영업이익	714.3	432.4	(39.5)	697.1	(40.0)	(35.9)	2,154.1	2,359.7
영업이익률(%)	13.2	8.1	(5.1)	13.0	-	-	10.1	11.2
세전이익	639.5	360.9	(43.6)	-	(45.3)	(35.2)	1,799.5	-
순이익	486.1	420.6	(13.5)	481.5	(24.2)	0.3	1,502.4	1,653.6

*상기 보고서는 2011년 8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골프존(121440)

매수(유지)
목표가: 90,000원(유지)
종가(8/5): 66,200원

3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이익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What's new : 주주이익 환원정책 검토중

2011년 매출액 가이던스를 IPO시 제시했던 2,300~2,4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낮췄는데, 골프시물레이터 신제품인 3R 출시를 연기한 것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3R 출시를 이미 2012년 1분기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망치 변경은 하지 않았고, 우리 매출액 전망치는 2,120억원으로 수정된 가이던스대비 적다.

주주이익 환원정책으로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총액대비 자본금 규모가 적어 유통주식수를 확대하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 Positives :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 전년동기대비 227% 증가

K-IFRS 별도기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87억원과 193억원으로 우리 K-GAAP기준 추정치인 578억과 205억원에 부합했다. 국내 골프 시물레이터 신규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7.1% 감소했으나,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이 226.9% 증가했기 때문이다. 2분기 유료라운딩율은 55%로 전분기대비 14%p 높아졌다. 유료 라운딩율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7월 유료라운딩율도 58%로 전월대비 2%p 높아졌다. 9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해 연말까지 유료라운딩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문을 연 골프연습장(GDR) 1호점에 대한 반응이 좋아 회원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분당과 목동에 2, 3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 Negatives : 투자자산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2분기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금융비용이 발생해 우리 추정치를 하회했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ELS 가입 300억원)이 46억원 발생했기 때문이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만기시에 손실은 제거될 전망이다.

■ 결론 :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원 유지

골프존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원(2011년과 2012년 순이익평균에 목표 PER 14.4배 적용)을 유지한다. 근거는 다음 세가지다. 1) 3분기부터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 유료라운딩율 상승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12개월 forward PER이 10.9배로 양호한 성장성대비 저평가됐다.

(단위: 십억원, %)

	2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7.8	58.7	1.6	60.5	16.7	4.7	212.0	220.3
영업이익	20.5	19.3	(6.2)	22.3	131.0	(22.2)	53.2	66.9
영업이익률(%)	35.6	32.8	(2.7)	36.9	16.2	(11.3)	25.1	30.4
세전이익	24.0	17.9	(25.6)	25.0	39.8	(30.0)	69.7	77.2
순이익	20.8	16.3	(21.5)	22.0	39.8	(32.0)	62.0	68.3

*상기 보고서는 2011년 8월 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유주형 (jhyoo@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01(월)	8/02(화)	8/03(수)	8/04(목)	8/05(금)	8/08(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172.31	2,121.27	2,066.26	2,018.47	1,943.75	1,869.45	
	등락폭	39.10	-51.04	-55.01	-47.79	-74.72	-74.30	
	등락종목	상승(상한)	626(15)	170(9)	145(9)	234(15)	66(5)	62(11)
		하락(하한)	229(0)	687(1)	719(2)	609(2)	810(11)	835(18)
	ADR	116.09	106.87	98.47	92.48	84.87	78.73	
	이격도	10 일	100.77	98.45	96.29	94.62	92.10	89.78
		20 일	100.91	98.64	96.31	94.44	91.45	88.56
	투자심리	50	50	40	40	30	30	
	거래량 (백만 주)	259	347	424	348	476	565	
	거래대금 (십억 원)	6,318	7,620	7,953	7,536	10,291	10,682	
코스닥	코스닥지수	544.39	538.06	531.91	522.07	495.55	462.69	
	등락폭	8.34	-6.33	-6.15	-9.84	-26.52	-32.86	
	등락종목	상승(상한)	680(21)	267(14)	211(11)	259(15)	60(9)	76(8)
		하락(하한)	269(1)	684(2)	763(3)	708(4)	944(19)	931(78)
	ADR	111.52	104.68	99.20	94.82	86.99	79.63	
	이격도	10 일	102.14	100.70	99.45	97.65	93.32	88.25
		20 일	105.57	103.88	102.31	100.16	95.08	89.08
	투자심리	70	60	50	50	40	40	
	거래량 (백만 주)	400	503	423	482	536	601	
	거래대금 (십억 원)	1,973	2,376	2,305	2,559	2,938	3,144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5,494.9	1,804.2	2,538.9	538.5	278.6	836.6	116.2	119.8	649.2	933.3
	매도	6,228.2	1,884.2	1,897.6	387.1	225.9	692.6	86.7	264.2	241.1	761.3
	순매수	-733.3	-80.0	641.3	151.3	52.7	144.0	29.6	-144.4	408.2	172.0
	8월 누계	46.9	-1,827.9	1,724.2	-28.4	99.2	432.2	160.4	-358.4	1,419.1	56.8
	11년 누계	2,373.2	-2,645.3	2,241.8	2,320.4	-573.9	-4,353.0	1,603.8	-1,791.5	5,036.0	-1,969.7
코스닥	매수	2,849.1	109.0	176.3	21.1	20.1	73.6	14.0	7.1	40.5	39.7
	매도	2,844.4	142.2	158.9	24.8	21.7	58.0	9.8	20.9	23.7	28.5
	순매수	4.7	-33.2	17.4	-3.7	-1.7	15.6	4.2	-13.8	16.8	11.2
	8월 누계	-58.8	-160.5	232.7	-21.8	69.6	83.6	18.7	-25.0	107.7	-13.4
	11년 누계	4.6	26.4	275.9	65.8	172.5	-78.8	40.2	-82.3	158.6	-306.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91,447	전기,전자	-37,488
서비스업	39,009	금융업	-12,995
음식료품	17,276	증권	-7,856
LG화학	23,407	삼성전자	-45,258
현대차	19,957	삼성중공업	-33,228
기아차	19,807	대우조선해양	-15,016
금호석유	18,038	현대제철	-14,271
S-Oil	16,765	KB금융	-12,610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07,909	전기,가스업	-7,370
화학	96,637	금융업	-7,340
전기,전자	39,678	증권	-402
기아차	34,045	우리금융	-11,621
현대중공업	29,876	한진중공업	-7,411
삼성전자	22,614	한국전력	-6,596
LG화학	21,450	한진해운	-6,161
현대모비스	16,821	대한생명	-2,59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12,677	화학	-38,957
은행	1,084	운수장비	-35,174
통신업	641	전기,전자	-19,203
POSCO	14,840	현대중공업	-11,048
삼성엔지니어링	2,519	LG화학	-10,505
KT	2,162	삼성전자	-10,066
제일기획	1,562	하이닉스	-8,192
코오롱인더	1,108	기아차	-7,53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16,809	전기,전자	-15,573
운수장비	15,984	금융업	-6,890
통신업	10,219	화학	-5,393
기아차	16,748	OCI	-11,326
삼성생명	9,420	대우조선해양	-7,129
현대차	9,106	LG디스플레이	-6,776
고려아연	8,123	LS	-6,191
KT	8,058	삼성전자	-6,01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81,456	금융업	-23,343
운수장비	109,549	증권	-10,386
서비스업	97,229	기계	-6,629
기아차	78,292	삼성중공업	-29,746
POSCO	56,870	KB금융	-23,624
LG화학	43,711	대우조선해양	-21,299
현대차	40,206	LG디스플레이	-16,217
현대모비스	27,983	한진중공업	-12,979
S-Oil	27,175	삼성증권	-10,225
금호석유	23,638	삼성전자	-9,724
KT	21,489	두산인프라코어	-8,683
하이닉스	19,881	우리금융	-8,069
SK이노베이션	18,660	대우인터내셔널	-6,150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27,795	화학	-97,065
전기,전자	27,210	철강및금속	-31,141
유통업	18,293	운수장비	-27,529
삼성중공업	27,346	기아차	-50,115
삼성전기	25,343	POSCO	-35,216
LG	15,516	OCI	-28,993
우리금융	14,649	LG화학	-23,187
한화케미칼	14,558	삼성엔지니어링	-18,479
KB금융	13,249	오리온	-15,597
삼성증권	12,628	LG생활건강	-13,977
현대건설	10,751	삼성전자	-11,532
대우인터내셔널	8,612	S-Oil	-10,780
롯데쇼핑	7,447	현대모비스	-8,84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5,760	기계, 장비	-1,823
인터넷	5,222	출판, 매체복제	-1,807
IT부품	4,395	반도체	-1,713
CJ오쇼핑	4,714	에스엔유	-3,016
다음	4,433	심텍	-2,585
하나투어	3,228	덕산하이메탈	-2,022
CJ E&M	2,262	네오위즈	-1,517
파라다이스	2,221	골프존	-1,25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4,495	소프트웨어	-2,197
전문기술	3,028	디지털콘텐츠	-1,075
사업지원	2,826	운송장비, 부품	-520
CJ E&M	3,028	골프존	-2,955
서울반도체	2,836	네오위즈게임즈	-1,954
하나투어	2,616	성광벤드	-1,613
셀트리온	1,619	오성엘에스티	-771
포스코캡텍	1,437	CJ오쇼핑	-42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683	전문기술	-2,101
운송장비, 부품	292	금속	-1,627
금융서비스	101	반도체	-1,434
셀트리온	683	CJ E&M	-1,969
평화정공	269	하나투어	-1,234
서울반도체	242	CJ오쇼핑	-1,061
원익쿼츠	214	와이지-원	-822
AP시스템	189	현진소재	-71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498	기계, 장비	-6,351
사업지원	1,154	반도체	-2,303
화학	794	IT부품	-1,067
CJ오쇼핑	1,381	젼박스	-5,344
모두투어	1,089	OCI머티리얼즈	-1,271
에스엠	711	네오위즈게임즈	-1,037
다음	673	에스에프에이	-913
포스코캡텍	609	파트론	-663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7,060	기계, 장비	-10,600
사업지원	6,836	소프트웨어	-3,394
방송서비스	5,145	출판, 매체복제	-2,494
다음	6,201	젼박스	-4,000
서울반도체	6,021	골프존	-3,729
하나투어	5,351	에스엔유	-3,113
CJ E&M	4,461	메디포스트	-2,578
CJ오쇼핑	3,946	원익IPS	-2,140
파라다이스	2,633	에스에프에이	-2,117
셀트리온	2,420	심텍	-2,029
차바이옴	2,141	현진소재	-1,858
포스코캡텍	1,944	성광벤드	-1,738
모두투어	1,515	네오위즈	-1,51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 장비	2,531	전문기술	-8,738
계약	1,295	도매	-6,030
통신장비	357	인터넷	-5,586
오성엘에스티	1,979	CJ E&M	-8,959
씨젠	1,923	아가방컴퍼니	-5,849
하나투어	1,904	다음	-5,612
OCI머티리얼즈	1,580	CJ오쇼핑	-3,607
제이엔케이히터	1,147	네오위즈게임즈	-3,305
크루셀텍	1,078	AP시스템	-2,423
셀트리온	795	세운메디칼	-1,952
SBS콘텐츠허브	585	엠텍비전	-1,895
케이피엠테크	560	모두투어	-1,673
에코프로	524	서울반도체	-1,63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케이피케미칼	21 일	태광산업	14 일
롯데제과	17 일	오뚜기	11 일
NHN	17 일	효성	9 일
STX팬오션	16 일	종근당	6 일
아모레퍼시픽	16 일	외환은행	6 일
POSCO	15 일	한일이화	6 일
대교	15 일	우리투자증권	5 일
KCC	14 일	LG이노텍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모두투어	17 일	SBS콘텐츠허브	8 일
하나투어	14 일	크루셜텍	8 일
이트레이드증권	9 일	루멘스	7 일
이오테크닉스	8 일	덕산하이메탈	5 일
위메이드	7 일	유진기업	4 일
태광	6 일	테라리소스	4 일
SK컴즈	6 일	JW중외신약	4 일
포스코컴텍	5 일	시그네텍스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POSCO	189,198	GS	43,812
기아차	171,313	SK이노베이션	41,055
롯데쇼핑	117,974	삼성증권	31,857
LG화학	115,489	효성	27,994
하이닉스	112,893	현대글로벌비스	26,716
KT	97,734	기업은행	26,091
삼성전자	90,932	대한항공	22,802
NHN	80,764	대우조선해양	20,870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하나투어	29,989	덕산하이메탈	11,137
서울반도체	26,044	에스엠	6,703
CJ오쇼핑	22,406	크루셜텍	3,853
네오위즈게임즈	14,175	제이엔케이히터	3,581
다음	13,597	태웅	2,788
모두투어	13,011	세운메디칼	2,601
CJ E&M	8,030	씨젠	2,593
SK컴즈	7,746	SBS콘텐츠허브	2,418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유통업	47,417	18,293	65,711
운수창고	24,674	10,155	34,829
건설업	3,872	17,283	21,155
SK이노베이션	18,660	6,295	24,955
대한항공	13,005	4,645	17,650
삼성물산	13,707	3,074	16,781
롯데쇼핑	5,365	7,447	12,812
SK C&C	6,661	2,647	9,308
제일모직	6,501	2,677	9,177
현대하이스코	2,971	4,719	7,690
LG이노텍	3,401	4,091	7,492
고려아연	6,926	285	7,211
효성	2,884	3,769	6,654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사업지원	6,836	214	7,051
비금속	2,035	16	2,051
화학	1,544	123	1,667
하나투어	5,351	1,904	7,254
셀트리온	2,420	795	3,215
씨젠	48	1,923	1,971
제이엔케이히터	153	1,147	1,300
위메이드	1,151	36	1,187
크루셜텍	20	1,078	1,098
이엔에프테크놀로지	801	1	802
이오테크닉스	728	34	762
GS홈쇼핑	512	18	531
서부T&D	332	7	33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LG전자	12 일	아모레퍼시픽	24 일
모토닉	10 일	대교	21 일
대우조선해양	9 일	한일시멘트	20 일
일양약품	7 일	롯데제과	20 일
현대건설	6 일	STX팬오션	15 일
세종공업	6 일	한국전력	14 일
종근당	5 일	롯데칠성	13 일
LG	5 일	KCC	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평화정공	10 일	태광	22 일
현진소재	6 일	한국정밀기계	10 일
큐렉소	6 일	동서	8 일
덕산하이메탈	6 일	테크노세미켄	8 일
젬백스	5 일	서울반도체	7 일
포스코 ICT	3 일	한진피앤씨	6 일
유진기업	3 일	실리콘웍스	6 일
게임하이	3 일	KCC건설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B금융	-102,194	기아차	-257,898
대우조선해양	-91,857	삼성전자	-238,744
LG	-81,049	LG화학	-185,356
OCI	-64,004	현대중공업	-137,969
LG전자	-62,061	POSCO	-134,303
현대차	-48,247	현대모비스	-131,364
삼성중공업	-47,078	현대차	-116,010
한진중공업	-39,521	삼성중공업	-87,158

KOSDAQ			
기	관	외	국 인
젬백스	-11,875	네오위즈게임즈	-27,327
에스엠	-6,169	서울반도체	-22,165
덕산하이메탈	-6,020	셀트리온	-18,035
현진소재	-5,850	CJ E&M	-17,546
태웅	-5,276	CJ오쇼핑	-16,584
로엔	-4,336	하나투어	-13,320
네패스	-4,249	다음	-9,520
에스맥	-3,359	AP시스템	-7,59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섬유,의복		1,387		4,663		6,050
의약품		9,780		1,719		11,499
건설업		3,872		17,283		21,155
OCI		-2,250		-28,993		-31,243
삼성전자		-9,724		-11,532		-21,256
신한지주		-1,911		-8,177		-10,088
두산엔진		-5,621		-4		-5,625
대한생명		-1,459		-1,189		-2,648
남해화학		-1,480		-619		-2,098
일진머티리얼즈		-896		-640		-1,535
삼성출판사		-1,126		-2		-1,128
중국원양자원		-915		-96		-1,011
송원산업		-736		-190		-926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도매			-79	-6,030		-6,108
소프트웨어			-3,394	-276		-3,671
출판,매체복제			-2,494	-816		-3,310
젬백스			-4,000	-86		-4,086
메디포스트			-2,578	-932		-3,510
현진소재			-1,858	-987		-2,846
게임빌			-1,101	-1,164		-2,265
원익IPS			-2,140	-40		-2,180
네오위즈			-1,517	-73		-1,591
이엘케이			-261	-1,266		-1,527
로엔			-959	-436		-1,395
평화정공			-874	-359		-1,232
에스엠			-847	-160		-1,00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한화케미칼	1,415	56,773
금호석유	183	32,668
기아차	418	30,162
현대중공업	85	29,989
현대제철	202	23,408
S-Oil	131	17,151
하이닉스	746	17,090
SK텔레콤	108	15,40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서울반도체	166	4,610
네오위즈게임즈	53	3,581
다음	24	3,095
셀트리온	30	1,366
넥스트칩	76	962
에스에프에이	13	792
원익IPS	99	787
테크노세미켐	9	431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POSCO	9,606	4,255,451
삼성전자	2,438	1,923,629
OCI	4,395	1,479,073
현대차	4,791	977,369
하이닉스	33,853	797,228
LG전자	10,865	748,590
현대중공업	1,805	636,129
삼성전기	8,407	628,85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8,629	387,013
서울반도체	7,189	206,332
메가스터디	247	37,076
원익IPS	4,196	32,390
OCI머티리얼즈	243	27,648
네오위즈게임즈	395	25,842
테크노세미켐	521	23,948
덕산하이메탈	880	23,527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전기, 전자	9,122	기계	-1,502
금융업	8,676	건설업	-445
운수창고	5,631	의약품	-126
하이닉스	3,493	두산인프라코어	-1,628
하나금융지주	3,240	한화케미칼	-1,522
STX팬오션	2,674	두산건설	-816
KB금융	2,610	대우건설	-649
현대상선	2,438	오리엔트바이오	-415
웅진케미칼	2,081	한국타이어	-353
신한지주	1,922	현대EP	-218
LG디스플레이	1,801	한라공조	-206
삼성전기	1,750	STX조선해양	-182
대한생명	1,707	LIG손해보험	-16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863	화학	-129
교육	477	기계, 장비	-39
IT부품	460	금속	-38
서울반도체	533	주성엔지니어링	-122
에듀박스	360	에코프로	-84
셀트리온	305	경남제약	-57
루멘스	280	원익IPS	-52
파트론	246	에스에프에이	-50
SK브로드밴드	209	동국S&C	-33
다원시스	178	이엘케이	-31
네오위즈게임즈	173	SSCP	-30
게임하이	113	태광	-26
AP시스템	112	리노스	-19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02(화)	8/03(수)	8/04(목)	8/05(금)	8/08(월)
외국인	-2,645.3	-1,827.9	-2,081.3	-374.2	-777.6	-438.6	-411.0	-80.0
기관계	2,241.8	1,724.2	1,622.8	-75.6	279.6	-120.5	898.2	641.3
(투신)	-4,353.0	432.2	456.2	-160.5	24.4	50.2	398.3	144.0
(연기금)	5,141.8	1,393.7	1,361.1	184.9	247.6	35.5	485.2	407.9
(은행)	-1,791.5	-358.4	-371.9	-43.3	-8.1	-76.5	-99.6	-144.4
(보험)	-573.9	99.2	65.6	-39.0	-76.1	49.9	78.1	52.7
개인	2,373.2	46.9	565.4	680.6	717.9	472.5	-572.2	-733.3
기타	-1,969.7	56.8	-106.9	-230.7	-219.9	86.6	85.0	172.0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8/01(월)	8/02(화)	8/03(수)	8/04(목)	8/05(금)
KOSPI	1,124.47	1,682.77	2,051.00	2,172.31	2,121.27	2,066.26	2,018.47	1,943.75
고객예탁금	9336.3	12072.0	14068.5	17256.8	17190.3	18476.5	18665.8	18798.1
(증감액)	-746.3	-714.3	-228.9	-24.6	-66.5	1286.2	189.3	132.3
(회전율)	46.9	52.6	51.5	48.8	58.7	56.2	54.9	71.1
실질예탁금 증감	-624.7	-551.4	-655.2	75.6	36.2	764.8	746.9	744.9
신용잔고	1502.0	4359.5	5938.3	6325.5	6288.1	6331.7	6364.9	6392.8
미수금	145.1	240.2	192.3	191.1	208.0	186.5	283.4	349.0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8/01(월)	8/02(화)	8/03(수)	8/04(목)	8/05(금)
전체 주식형	101,552	-3,819	642	65	-20	179	167	252
(ex. ETF)		-6,279	416	12	-47	116	131	204
국내 주식형	68,040	1,530	793	95	12	208	199	279
(ex. ETF)		-939	566	42	-15	145	164	231
해외 주식형	33,512	-5,348	-150	-30	-32	-30	-33	-26
(ex. ETF)		-5,341	-150	-30	-32	-30	-33	-26
주식 혼합형	12,519	495	128	5	-1	15	21	80
채권 혼합형	19,423	-144	282	-14	6	-44	105	229
채권형	48,310	-4,506	-27	-234	57	15	145	-9
MMF	52,714	-15,249	166	-327	-388	-485	1,740	-37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02(화)	8/03(수)	8/04(목)	8/05(금)	8/08(월)
한 국	-681	-2,333	-1,965	-355	-734	-411	-387	-78
대 만	-1,187	-622	-2,643	-154	-619	-246	-539	-1,086
인 도	2,161	-1,156	-232	-19	-181	-33	-	-
인도네시아	2,719	-28	-326	81	-64	-66	-144	-133
태국	943	-551	-63	125	-1	17	-204	-
남아공	49	-69	-344	-34	-68	-72	-169	-
필리핀	682	68	-45	12	0	-6	-13	-38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0년	8/01(월)	8/02(화)	8/03(수)	8/04(목)	8/05(금)	8/08(월)
회사채 (AA-)	4.27	4.59	4.56	4.51	4.46	4.32	4.31
회사채 (BBB-)	10.26	10.58	10.55	10.50	10.45	10.31	10.30
국고채 (3년)	3.38	3.90	3.87	3.82	3.77	3.61	3.60
국고채 (5년)	4.08	4.05	4.00	3.94	3.90	3.77	3.81
국고채 (10년)	4.52	4.24	4.21	4.15	4.12	4.01	4.06
미 국채 (10년)	3.36	2.74	2.61	2.62	2.40	2.56	-
일 국채 (10년)	1.13	1.08	1.05	1.02	1.02	1.01	-
원/달러	1,134.80	1,050.50	1,050.80	1,060.40	1,061.70	1,067.40	1,082.50
원/엔	1,392.56	1,372.00	1,363.00	1,380.00	1,345.00	1,361.00	1,391.00
엔/달러	81.49	76.59	77.11	76.86	78.94	78.46	77.82
달러/유로	1.33	1.42	1.42	1.42	1.41	1.42	1.43
DDR3 1Gb (1333MHz)	1.09	0.80	0.79	0.79	0.78	0.77	-
NAND Flash 16Gb (MLC)	4.84	2.60	2.60	2.63	2.66	2.64	-
CRB 지수	327.11	341.41	341.82	337.32	327.97	326.80	-
LME 지수	4,164.25	4,258.3	4,258.9	4,170.5	4,093.5	3,945.6	-
BDI	1,773	1,256	1,253	1,260	1,268	1,268	-
유가 (WTI, 달러/배럴)	89.84	94.89	93.79	91.93	86.63	86.88	-
금 (달러/온스)	1,405.90	1,619.00	1,641.90	1,664.90	1,657.50	1,650.2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109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증감
8월 2일	275.40	275.85	1.00	0.45	1.11	417,490	100,274	1,154
8월 3일	267.80	267.25	0.95	-0.55	0.44	381,098	104,305	4,031
8월 4일	261.54	261.55	0.90	0.01	0.37	467,163	104,747	442
8월 5일	251.90	251.50	0.84	-0.40	0.74	530,575	111,165	6,418
8월 8일	242.45	241.75	0.76	-0.70	0.83	713,770	115,394	4,229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보험	기금
			증권	투신	은행	증권	투신		
8월 2일	-7,099	1,197	5,456	5,136	-120	1,038	138	-200	
8월 3일	-5,409	-1,297	3,557	1,195	1,417	-324	764	88	
8월 4일	2,573	-572	-1,645	-1,475	1,041	-595	-390	-83	
8월 5일	7,541	-3,756	-3,046	-2,704	1,369	-1,168	-538	205	
8월 8일	6,898	-941	-4,568	-1,880	-565	767	-3,115	-100	
누적포지션	6,314	565	-7,221	-3,031	1,988	-787	-5,299	-632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8월 2일	1,389	927	-462	1,082	807	-275	308	120	-187	9,197	9,404
8월 3일	1,647	1,095	-553	922	1,006	84	725	88	-637	9,356	8,967
8월 4일	1,107	1,003	-104	627	706	78	480	297	-183	9,359	8,710
8월 5일	1,189	2,301	1,112	737	1,682	946	452	618	167	9,313	8,826
8월 8일	1,586	2,112	526	1,002	1,469	467	584	643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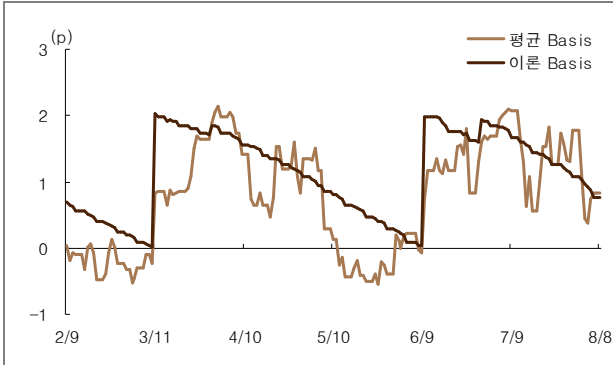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53.29	25,789	1,214,343	0.16	265.00	23.65	19,409	-8,143	84.26
	51.14	10,373	1,422,588	0.21	262.50	21.40	34,599	-12,030	82.92
	51.13	16,050	1,887,065	0.34	260.00	19.00	27,507	-10,222	78.03
	50.22	43,327	1,547,490	0.50	257.50	17.00	28,437	-10,633	79.17
	49.74	94,530	1,541,819	0.75	255.00	14.80	101,822	-13,988	75.89
	50.04	41,286	1,228,849	1.15	252.50	12.65	155,554	-37,514	72.38
	48.64	53,392	989,439	1.58	250.00	10.25	305,968	-55,391	64.65
	51.52	43,243	629,748	2.50	247.50	8.80	544,923	-31,764	67.56
	51.42	21,829	215,801	3.40	245.00	6.80	997,702	37,569	62.09
	46.08	15,923	117,456	4.05	242.50	5.55	1,104,667	29,867	63.42
	48.98	9,909	55,620	5.65	240.00	4.50	1,776,877	40,336	6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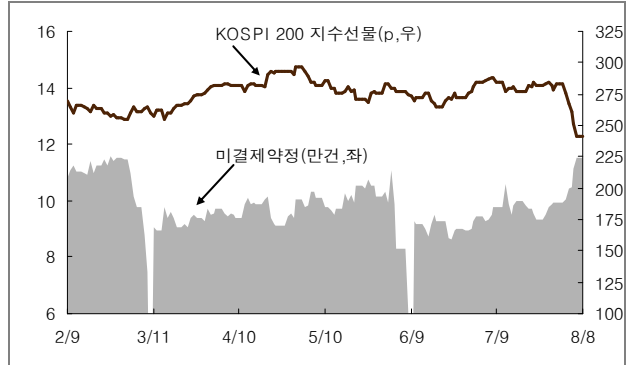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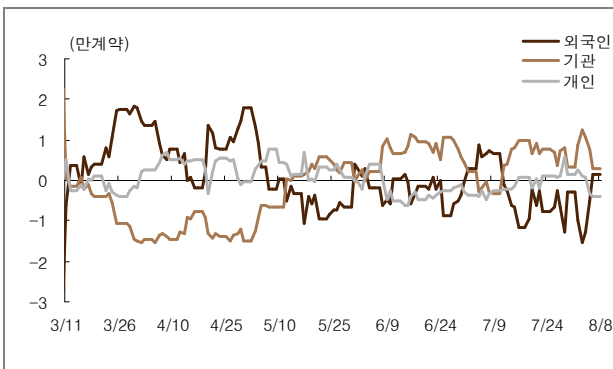
- 평균 Basis: 0.83 (전 거래일 대비 0.09 상승)
- 이론 Basis: 0.76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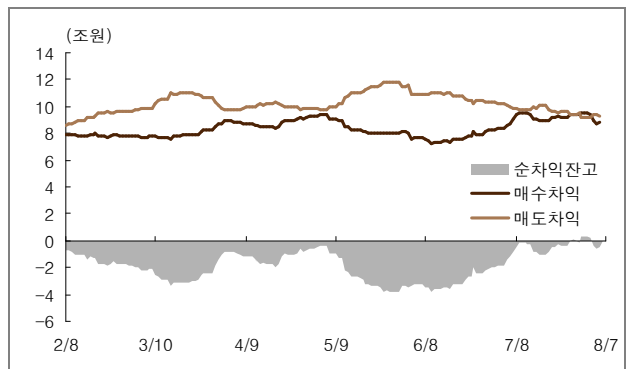
- 미결제 약정수량: 전 거래일 대비 4,229 계약 증가한 115,394 계약
- 선물가격(241.75): 전 거래일 대비 9.7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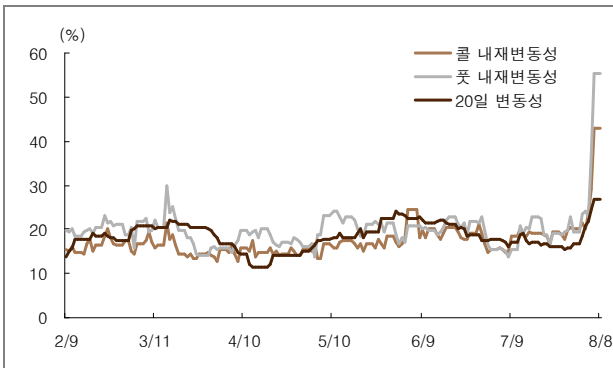
- 외국인: 6,898 계약 순매수
- 기관: 4,568 계약 순매도 / 개인: 941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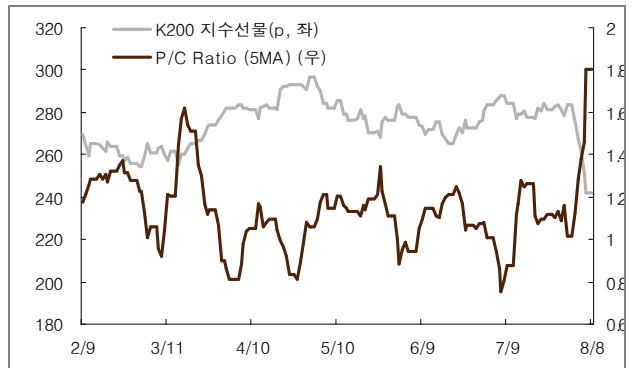
- 차익거래: 590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4,672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42.9% / 풋 55.2%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26.98%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80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1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
韓>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4.7%, 4.4%, 4.4%) 7월 대외무역-수출 YoY (27.3%, 17.1%, 13.6%) 7월 대외무역-수입 YoY (24.8%, 26.1%, 27.5%) 美> 7월 ISM 제조업지수 (50.9, 54.5, 55.3) 7월 ISM 구매물가지수 (59.0, 64.4, 68.0) 유럽> 7월 PMI-제조업 (50.4, 50.4, 50.4) 中> 7월 PMI-제조업 (50.7, 50.2, 50.9) 日> 7월 자동차 판매 YoY (-27.6%, n/a, -23.3%)	美> 6월 개인소득 MoM (0.1%, 0.2%, 0.2%) 日> 7월 본원통화 YoY (15.0%, n/a, 17.0%)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7.1%, n/a, -5.0%) 7월 ISM 비제조업지수 (52.7, 53.5, 53.3) 7월 ADP 취업자 변동 (11.4만, 10.0만, 14.5만) 유럽> 6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0.4%, -1.0%, -2.3%) 7월 PMI-서비스 (51.6, 51.4, 51.4) 中> 7월 PMI-비제조업 (59.6, n/a, 57.0)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0.4만, 40.5만, 40.1만) 유럽> ECB 금리공시 (1.50%, 1.50%, 1.50%) BOE 금리공시 (0.50%, 0.50%, 0.50%) 日> BOJ 금리결정 (0.10%, n/a, 0.10%)	美> 6월 소비자신용지수 (\$155.3억, \$50.0억, \$50.9억) 7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11.7만, 8.5만, 4.6만) 7월 실업률 (9.1%, 9.2%, 9.2%) 8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35.8, 42.0, 41.4)
8	9	10	11	12
유럽> 8월 섹터 투자자기대지수 (-13.5, 3.5, 5.3) 日> 6월 경상수지 YoY (-50.2%, -40.1%, -51.7%) 실적발표> 韓 한라건설, GKL, 아모레퍼시픽 LG패션, 삼전리	韓>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n/a, 6.2%) 美> FOMC 금리결정 (n/a, 0.25%, 0.25%) 7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n/a, 90.0, 90.8) 中>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7.5%, 7.1%)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6.4%, 6.4%) 7월 소매판매 YoY (n/a, 17.7%, 17.7%) 日> 7월 통화공급 M2 YoY (n/a, 2.9%, 2.9%) 7월 소비자자기대지수 (n/a, 37.0, 35.3) 실적발표> 韓 현대하이스코	韓> 6월 통화공급 M2 YoY (n/a, n/a, 3.7%) 7월 실업률 SA (n/a, 3.4%, 3.3%) 7월 은행가계대출 (n/a, n/a, 443.2조)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7.1%) 中> 7월 실질 FDI YoY (미확정) (n/a, n/a, 2.8%) 7월 대외무역-수출 YoY (n/a, 17.0%, 17.9%) 7월 대외무역-수입 YoY (n/a, 22.0%, 19.3%) 日> 7월 국내기업물가지수 MoM (n/a, 0.0%, -0.1%) 실적발표> 韓 네오위즈게임즈 美 Cisco, 월드트리즈니	韓>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n/a, 3.25%, 3.25%)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40.1만, 40.0만) 6월 무역수지 (n/a, -\$480억, -\$502억) 中> 7월 신규 위안 대출 (미확정) (n/a, 5500억, 6339억) 7월 통화공급 M2 YoY (n/a, 15.8%, 15.9%) 日> 6월 기계수주 YoY (n/a, 11.3%, 10.5%) 실적발표> 韓 대한생명, NHN, CJ이앤엠, 아시아나항공, 한국가스공사 美 뉴스코포레이션	韓> 7월 수출물가지수 YoY (n/a, n/a, -0.4%) 7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n/a, 10.5%) 美> 7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n/a, 0.5%, 0.1%) 日> 6월 산업생산 YoY (n/a, n/a, -1.6%) 실적발표> 韓 삼성생명, 다음, 엔씨소프트, 강원랜드, 현대글로비스 美 JC페니
15	16	17	18	19
美> 8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8월 NAHB 주택시장지수 日> 도쿄백화점판매 YoY (미확정) 실적발표> 韓 한국전력	美> 7월 수입물가지수 YoY 7월 주택건설착공 MoM 7월 건축허가 MoM 7월 산업생산 MoM 유럽> 2Q 유로권 GDP SA YoY	韓> 7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7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유럽> 7월 유로권 CPI YoY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7월 경기선행지수 MoM 8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8월 기존주택매매 MoM 日> 7월 대외무역-수출 YoY 7월 대외무역-수입 YoY	日> 6월 전체공업활동지수 MoM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KIS Research, Bloomberg 기준으로 작성

